

▣ 토론 분야(주제) : 전통시장과 마을만들기

▣ 토론 요지 :

전통시장은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뿌리내린 장(場)으로, 원스톱쇼핑과 저가격대 상품구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서민에게는 상품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영세상인에게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여, 1990년경까지 백화점과 함께 소매업계의 큰 축으로 기능하였다. 1996년의 유통시장 자유화에 따른 외자계 소매기업 진출, 국내 대기업의 소매분야 진출, 무점포판매/SSM등 새로운 소매업태의 급성장 등, 소매업계의 급격한 재편 속에서 오늘날 전통시장은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충남의 전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개수와 매장면적, 매출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통시장/중소영세상인 보호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어, 올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되었다. 동 개정으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이 시군구의 조례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충남에서도 천안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일본의 상점가(商店街)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나, 상점가 진흥정책이 보호/조정정책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일본이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50여년이 지나서 깨달은, 지역 내의 상업기능은 지역의 여타 기능과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고, 「마을만들기」라는 큰 틀 안에서 그 관계를 강화시킬수록 각각의 부문들이 더욱 유효하게 기능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이는,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상점가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e.g. 도쿄都 아모리 토와 상점가), 상학연계(e.g. 와세다대학주변 상점가모임), 콤팩트 시티 정책(e.g. 타카마츠市 마루가메마치 상점가)처럼, 상점가만의 이익추구를 넘어 마을만들기 차원의 운동,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시도한 운동들이 결과적으로 상점가의 이익으로 돌아온 것에서 증명된다.

전통시장활성화 논의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유통대자본과 전통시장의 관계에서 약자인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당위적 의미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 「커뮤니티」의 의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시장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추진”과 같은 국소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벌써 동 조례를 도입한 여러 지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대형마트와, 강제성 없는 조례를 대형마트가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걸쳐 다양한 소매업태가 존재하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국소적, 직접적 처방은, 잠시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나, 지속기간이 짧고 여러 부작용을 불러 온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통시장들이 이러한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여 내발적(Endogenous)으로 마을만들기적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운동을 펼치는 맹아기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전통시장이 지역의 멤버로써 지역과 소통하고 연계할 때, 전통시장과 지역 간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재생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진사례들이 말해주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김승일((주)시장과 사람들 대표)

▣ 토론 분야(주제) : 전통시장과 마을만들기

▣ 토론 요지 :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 각 부처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부서의 성격을 녹여낸 사업인듯 싶지만 사실 이사업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구성이 된다. 마을도 마찬가지다. 최소 구성 조직인 마을의 구성원도 사람이다.

마을만들기는 고로 사람만들기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그 마을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마을에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통시장과 마을만들기는 고로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시장을 위한 일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